강세원 이사
(퓨리나코리아)

작년의 IMF사태 이후 돈가에 영향하는 국내생산, 수요 및 돈육수출입 동향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봄철에 상승하기 시작하여 여름까지 지속되는 전형적인 돈가상승 패턴이 이번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생산량을 말해주는 양돈사료 생산량은 예상대로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별로 보더라도 이달부터 본격 감소하여 다가오는 여름에는 출하 예상량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지난 연말 이후 모돈사료 생산량이 모처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간의 돈가상승에 힘입은 농가의 모돈 입식열기를 대변해주고 있다 하겠다. 여기에 국내 소비도 늘어나고 일본 돈가 상승에 따른 수출수요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돈가상승 요인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월초 지육 kg당 2,800~2,900원대의 강세속에 일시나마 3,000원대의 시세 보일 것 예상

이에 반해 돈가하락 요인인 수입육은 품질면에서 아직 국내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태속에 그나마 물량면에서도 구정수요로 빠진 이후 계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여 돈가는 2월강세가 계속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초에는 평균 2,800~2,900원대의 강세속에 일시나마 3,000원대의 지육시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월중 이후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입장에서는 최근의 돈가상승이 근본적으로 출하두수 감소에 따른 현상임을 착시하여 출하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많은 농장이 지난 겨울 설사병 및 호흡기 질환의 후유증으로 현재 성장률및 사료효율 관리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앞으로의 출하성적도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돈가 호기에 출하지연은 농장경영상 큰 손실이므로 주의깊게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단기적인 돈가변화에 편승하여 모돈두수를 급작스럽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도 농장 수익관리에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모돈은 농장의 고정자산이고 따라서 모돈두수는 농장의 고정자산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두수를 항상 유지하고 돈가 변화보다는 생산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양돈경영이 정도라 할 수 있다. 양돈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무팀)

3월에는 2,700원~2,800원 수준으로 유지될 듯

전세계 주요 돈육 수출국의 돈가가 98년 하반기부터 바닥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99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돈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주 원인으로는 ① 국내 가공업체의 생산능력이 5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일정 가동률 유지 차원에서 원료돈의 지속 구매에 의한 것, ② 대일 돈육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③ 그간 잔여육으로 취급된 잡육, 전후지가 고가 판매되고 있어 과거와 달리 채산성의 유지가 가능한 것이 현 돈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주판매 부위인 냉동 삼겹의 재고 체화, 갈비 및 갈매기살의 판가 하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돈육 소비 둔화로 인한 가공업체의 처리 두수 감축이 불가피해진다면 돈가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연중 4월이 일시적으로 돈육 소비량이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과 저가 수입육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국내 돈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양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1~2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 자유화 4년차가 되는 2000년이 되면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일본의 양돈과 한국의 양돈을 철저히 비교하여 장·단점을 파악,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월 평균 돈가는 2,700~2,800원/kg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월보다 월초보다 월말 돈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중 돈가가 예년과 같이 큰 폭의 증감은 없을 것이고 9월 이후에는 98년과 같이 돈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국내 육가공업체의 어려움이 국내 양돈에 약 5~6개월 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면, 4~5월에는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 소비의 증감 여부가 최대 변수라고 생각된다.

99년이 국내 양돈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양돈농가의 자체 경영 진단을 통한 냉철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 양돈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 편집국)

국내산 회복, 수입육 정체

구정 설 대목이 지나면서 돼지고기 유통시장은 한동안 정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입육 시장은 한마디로 '파리 날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큰 움직임이 없다. 반면, 국내산은 어느 정도 가격회복도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올 돼지고기 수급계획이 발표되면서 유통업체들은 나름대로 공급계획을 세워 추진되고 있다.

유통시장의 변수로 작용되는 산지 돼지값과 수입육 유통동향은 각각 강보합세 지속과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이 지나면서 돼지고기 성수기에 돌입, 유통가격의 다소 오름세도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수출에 있어서도 1월부터 7천톤 이상 수출, 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예외없이 돼지고기 수출은 국내 양돈산업을 지탱하는 결정적인 매개체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수출전선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산지 돼지값은 약 19만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육 원가는 환율 달러당 1천2백원을 가정했을 때 4천1백80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 돼지고기 공급량은 총 81만9천8백36톤, 수요량은 80만1천6백39톤에 달해 이는 지난해 대비 1.7%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급량을 보면 ▲전년이월 1만7천톤 ▲생산 74만8백36톤 ▲수입 6만2천톤과 수요량은 ▲내수 71만1천6백39톤 ▲수출 9만톤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출하두수는 지난해 12월 가축통계(자돈두수, 월별 임신두수) 조사결과 기준 1/4분기는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2/4, 3/4분기는 전년보다 2.5% 감소 전망이어서 산지 및 유통가격의 보합세 및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3월 들어 돼지고기 유통업체들 가운데 특히 수입육 업체들은 환율 안정과 국내 생산량이 다소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수입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삼겹살 재고량이 지난 2월까지 약 8천여톤에 달하고 있어 순수 수입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3월부터 돼지고기 유통시장은 상당한 혼전이 예상된다고 분석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양돈